

신학교, '생존' 아닌 '사명과 부르심' 위해 변화해야

미성대학교 제4대 이상훈 총장 취임 감사예배 드려

이상훈 신학교학 박사가 지난 15일, 미성대학교(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이하 미성대) 제4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상훈 총장은 취임사에서 "미성대의 존재 이유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며, 학생 중심의 현장교육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선교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신학교가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신학교들이 숭고한 목적보다 '생존'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위해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미성대의 존재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미성대를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발전시키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어 "온 오프라인 수업을 강화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교수진



취임사를 전하는 미성대 제4대 이상훈 총장

과 학생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글로벌 신학교를 꿈꾸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질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며, 이 시대 반드시 필요한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자 한다"라고 비전을 밝혔다.

그는 "세속화와 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미성대가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겸손

한 학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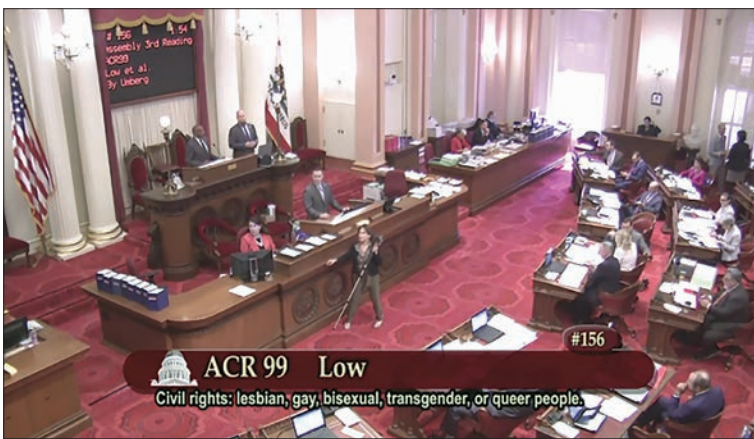
서울신학대 동문들과 남가주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가교회에서 열린 이날 취임예배

는 미성대 이사장 조종근 박사의 사회로 대외협력 부총장 김영철 박사가 기도, 재무이사 류호주 장로의 성경봉독에 이어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김용배 목사가 설교했다. 축사는 미성대 명예총장 이의철 박사,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가 전했으며, 미성대 명예총장 류종길 박사의 격려사에 이어 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박성삼 목사가 축도했다.

김용배 목사는 "생명신학, 생명신앙"(요한복음10장10절)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며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 전달하고 학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전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캘리포니아 주의회, ACR 99 결의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상하원 공동결의안(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ACR 99)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

강제성 띄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할 수 있어

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에반 로우(Evan Low)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목회자, 상담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이나 성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결의안은 "LGBT 정체성을 잘못된 신앙으로 낙인찍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종교적 자유가 여기에

서는 차별로 여겨지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 역시 '심리적 고문' 및 '정신적 건강의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안드레아스 보르기아스(Andreas Borgeas)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을 침해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 부분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목회자들에게 치료나 도움을 구할 때, (그 장소는) 모스크가 될 수도 있고, 성당이나 교

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개인에게 특정한 것을 말해선 안된다고 하는 경로를 만들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조나단 켈러(Jonathan Keller) 대표 역시 "캘리포니아 기독교인들은 LGBTQ 정체성을 가진 이웃들을 사랑한다. 슬프게도 로우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개념을 신앙인들이 공식적으로 축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강해진 기자

번역/공증/파산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홈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 개설 가능

EG Global LDA Service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 (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날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넘버 : 122043958
 아카운 넘버 : 06209456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증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RSVP for Open House
 November 7th @ 7pm**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2020 인구센서스, 향후 10년간 한인 혜택 결정



사우스파사데나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2020 연방 센서스 브리핑

연방 센서스국은 지난 12일, 미국 내 아시아 미디어를 초청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2020 인구센서스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거주민은 누구나 온라인, 우편, 전화 등으로 인구조사에 참여 가능하다. 센서스국은 센서스 조사지 안에 법적인 체류 신분에 대한 질문 항목은 없으며, 철저한 보안으로 지역 경찰 등 어떤 정부기관에도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는다.

또 2020년 센서스는 응답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사상 최초로 모든 가구가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 중 하나의 방식을 통해 인구조사에 응답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및 일본

어 등 12개 언어로 인구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센서스국 운영부 제니퍼 김 부사장은 "10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연방 의원 선출 및 지역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간 6,750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의료, 일자리, 학교, 도로 및 사업 등 지역사회 경제 개발과 공공 보건 및 안전과 비상 대책 등을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인구조사에 참여도가 가장 낮은 그룹이 아시아계"라며 "인구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연방자금의 배분, 평등권 강화, 아시아의 정치적 신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센서스국 줄리 램 LA 지역본부장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조사 결

과에 따라 결정될 연방 자금으로 매우 많은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다"라며 "그동안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인구조사에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과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우리의 미래를 건설할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센서스국 이정은 파트너십 전문가가는 "정부 지원은 인구수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집계되지 않은 인구는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한인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해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정신 건강' 상담해 온 남가주 대형교회 부목사, 자살 선택



재리드 윌슨 목사. ©트위터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교회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 담임 그렉 로리 목사) 교회의 재리드 윌슨(Jarrid Wilson·30) 부목사가 지난 9일 자살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은 공식 성명을 내고 "재리드 윌슨이 어제 주님의 곁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라며 "재리드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종된 자로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자살 충동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도왔다"면서 "비극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전했다.

윌슨 목사는 또 같은 날 자살한 한 신도의 장례식을 집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 목사는 정신 건강을 주로 다뤘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 이러한 일이 존재한다. 또 이를 인

정해도 괜찮다"면서 "9월은 자살 예방의 달이다. 여러분 모두 '당신의 삶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렉 로리 목사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라며 "이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윌슨 목사의 아내 줄리 사모와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하비스트교회는 성도 수 1만 5,000여 명의 초대형 교회로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 '하비스트 콘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다.

강혜진 기자

[1면 '신학교, '생존' 아닌, '사명과 부르심' 위해 변화해야' 이어]

김 목사는 이어 최근 불륜 관계가 밝혀져 교계와 사회에 충격을 던진 청어람 양희승 대표를 언급하면서 "그는 유수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쳤고, 신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가졌다고 여겨졌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를 가르친 신학교는 어디이며, 가르친 교수나 목사는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시대는 신학교도 많고, 훌륭한 신학자와 사적들도 많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탄했다.

그는 "미성대가 신학교 건물을 크게 짓고, 학생수를 늘리는 것만

이 목적이 되지 않고, 생명신학과 생명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역자를 양성하는 미성대와 이상훈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한 미성대 명예총장 이의철 박사는 "이상훈 신임 총장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고, 소통과 배려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미주 내 여러 신학교가 생존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임 총장들의 수고의 터 위에 학교가 크게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는 "



미성대 제4대 이상훈 총장 취임 감사예배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류종길 전임 총장께서 미성대를 위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하신 일이 이상훈 박사를 후임 총장으로 선택하신 것"이라며 "이상훈 신임 총장이 전통과

변화의 조화를 이루고, 학문과 경건에 균형을 갖춘 좋은 목회자가 많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격려사를 전한 류종길 전임 총장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듯, 이상훈 신임 총장의 사역을 격려해달라"며 "미성대는 신임 총장과 함께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상훈 신임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부와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호주에서 성경과 선교 훈련을 받고,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Th.M.)와 박사(Ph.D.) 과정을 마쳤다. 풀러 선교대학원 한국어 과정 논문 지도를 담당하면서 선교 신학과 현대 문화, 선교적 교회 등과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쳐 왔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창립 9주년 9th anniversary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감사예배
 Santa Monica Korean Church Celebration Worship & Concert with Kim Quartet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창립 9주년 'Kim Quartet'와 함께 하는 음악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19년 10월 6일(주일) 오후 1:30
 Sun., Oct 6th 1:30 PM
 장소 :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Santa Monica Korean Church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초청강사 **하상훈** 목사
 Rev. Dr. Sang Ha
 현 인천하나교회 담임
 Korea Theological Seminary
 Dallas Baptist University
 Fuller Seminary
 BA, MA, M.Div., Dmin

김우영 소프라노
 Mrs. Helen Kim, Soprano
 전 LA영락교회 축창자
 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사모
 Yonsei University (voice)
 Texas Christian University (voice)

주일 예/배/안/내
 1부예배 10:30
 2부예배 1:30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www.smkc.us

“흠리스를 일으켜 세우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터뷰] 아버지 밥상교회 무디 고 목사, 마리아 조 전도사

“집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흠리스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가정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무시를 당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 흠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노숙과 마약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중심인 웨스턴과 올림픽에 위치한 아버지 밥상교회(Father's Table Mission)는 오늘도 분주하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부터 노숙자들은 밥상교회로 몰려든다. 아버지 밥상교회에서는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노숙자들은 제집처럼 드나들며 샤워도 하고 주린 허기를 달란다.

길에서 추위와 싸운 노숙자들을 맞이하려면 그들보다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노숙자들이 따뜻한 닭고기 수프와 커피, 도넛으로 밤 사이 얼었던 몸을 녹이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아버지 밥상교회 무디 고(고정석)목사와 밥상교회 형제들은 새벽 2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



아버지 밥상교회 흠리스 사역을 설명하는 무디 고 목사(우)와 마리아 조 전도사(좌)

한다.

LA 인근 도시 로렌하이트 크리 스피크립 도넛 매장에서 도넛 수 천 개를 가져온 후에는, 치킨 수프를 끓이고, 새벽 5시부터는 흠리스들과 예배를 드린다. 아침 예배 후

에는 음식을 준비해 다운타운 흠리스들을 찾아간다. 이런 일과는 1년 365일 계속된다. 고 목사가 흠리스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막 2년이 넘었지만, 쉽지는 않다. 매일 이뤄지기 때문인지 LA 한인타운에서 그는 유명하다.

고 목사가 중심이 된 아버지 밥상교회 사역은 예배와 음식 대접에서 그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흠리스 20여 명이 고 목사와 함께 생활한다. 고 목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변화된 영혼들은 이제 노숙자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됐다.

아버지 밥상교회에는 과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로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된 경우가 많다. 밥상교회 찬양 인도자는 25년

간 중독됐던 마약을 끊고 새 삶을 노래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탕자의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고생한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상처를 싸매는 ‘사랑’이 있었다.

“흠리스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음식과 쉴 수 있는 집보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노숙자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고 목사는 아버지 밥상교회가 흠리스 쉼터가 아니라 예수 제자 훈련 센터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8명이 제자훈련을 통해 침례를 받고 노숙자 전도에 나서고 있다.

고 목사는 “노숙자들을 거지 취급하면 그 사람은 정말 거지가 된

다. 그러나 정신없어 보이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대하면, 그들도 자활의 길을 갖고 일어나게 된다”라며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그 영혼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한다.

고 목사가 흠리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버지 밥상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다. 목회를 하기 전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강퍽 벤 하나를 사서 노숙하는 흠리스 5명을 재우기 시작했다. 흠리스가 늘어나자 노숙자들의 쉼터인 차도 7-8대까지 늘어났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한 사역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 목사는 “우리 집 앞에 길에서 흠리스가 자고 있다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고, 누군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면 우리 집 냉장고에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음식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며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활짝 웃고 주린 사람들을 씻기고 치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앞으로 더 많은 노숙자들을 치료하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노숙자 사역에 뜻을 함께 하고,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후원하는 후원을 기다린다”고 요청했다.

흠리스 사역에 동참하거나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교회는 아버지 밥상교회 전화 213-364-7289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의료사역을 펼치는 ANC온누리교회 공홍사역팀과 의료사역팀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세례를 준비하는 노숙자들



흠리스 형제, 자매들도 함께 하는 LA 다운타운 전도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8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 지역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 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프로그램 | Gold Plus | Gold | Silver | Bronze |
|------------|---|-------------------------------------|------------------|------------------|
| 1인 | \$175 | \$135 | \$ 80 | \$ 40 |
| 2인 | \$325 | \$260 | \$160 | \$ 80 |
| 3인 | \$425 | \$385 | \$240 | \$120 |
| 본인부담금(1인당) | \$500/Year | \$500/Incident | \$1,000/Incident | \$5,000/Incident |
| 지원금/질병당 | \$150,000 | \$150,000 | \$150,000 | \$150,000 |
| 지원내용 |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신/출산 건강검진(\$500/1년) |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 입원, 수술 | 입원, 수술 |

*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8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시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7

사우스베이 지역 '한인소망교회'의 선교이야기

필자는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담임목사들의 친교모임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교회연합사역까지 함께 하는 교회협의회의 역할도 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사우스베이 교회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린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가을철 교회연합 찬양제를 매년 한 번씩 열었는데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의 모임을 주재하면서 많은 보람을 얻는다. 각 교회 담임목사들이 서로 마음이 많이 오픈되어 있다.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매우 값있다. 다양한 목회의 경험들을 나누고 사우스베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한인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협력해야 할까 고민도 한다. 어느 편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토양의 모임이 되어 있다. 교회마다의 선교 방향과 선교 비전들을 나눌 때면 각 목사님들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올해는 처음으로 10월 6일에 사우스베이 교회연합찬양제를 준비하면서 목적을 선교사들의 연합 사역을 후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기도하며 대상을 찾았다.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에서 각기의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중심의 은퇴자들이 모여 연합사역을 계획했다. 그들의 사역은 다양하다. 의료사역, 구제사역, 전도사역, 학교사역, 음악사역 등 자신들의 전문적 분야의 사역을 각자가 순수하게 욕심 없이 열심을 다해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이번에 사우스베이 한인교회연합찬양제에 참여하기로 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사역을 계획하였다.

사우스베이 교회연합은 그들의 연합사역을 후원하기로 했다. 그 결정에 발판이 되어 준 교회가 "한인소망교회(담임 윤목 목사)"이다. 그 교회의 담임인 윤목사는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다. 목사회 안에서 이미 회장을 역임하였고 목사회에서도 운유하고 리더십이 좋은 목사로서 많은 칭송을 받는다. 한인소망교회는 윤목사가 부임한 이후로 지난 10년

간 꾸준히 멕시코의 엔세나다 지역의 한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후원이란 표현보다는 윤목사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했다. 1년에 몇 차례씩 성도들이 함께 마치 소풍 다녀오듯 선교지를 수시로 다녀온다.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행사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멕시코 현지 형제들을 진짜로 형제 찾아가듯이 교우들이 같이 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웃고 즐기다가 오는 함께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현지인 형제가 병으로 신음하면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같이 하다가 돌아오는 방문 선교를 꾸준히 하고 있다.

어느 편 특별하게 선교지를 후원해야 할 때가 되면 교회에 하나씩 은사로 주신 음악적 달란트를 활용하여 "선교를 위한 교회 음악회"를 열어 이웃 교우들을 초청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목사들이 함께 축복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참 좋다.

그렇게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이번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에 후원할 선교사연합회를 그들이 아름답게 보아왔던 엔세나다 지역 선교사들을 추천하여서 연합 후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행사의 준비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저는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 목사님들이 대외적으로 칭송받을 때 내 일처럼 참 기쁩니다." 말했다. 곧바로 서로들 "저도요, 저도 그래요"하며 활짝 웃는 이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보이고 싶다. 그만큼 행복하다.

행복 만들기 (3) 미소 짓기!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어린 왕자'의 작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미소'라는 아주 짧은 단편을 남겼습니다. '미소'의 주인공 '나'는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힙니다. '나'는 곧 처형되리라는 걸 직감합니다. 죽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나'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불안과 공포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져 담배 한 개비를 발견합니다. '나'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손이 떨려 담배를 입에 물기도 힘든데 겨우 입에 물고 불을 붙이려는데 불이 없습니다. 모두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살 너머 간수를 바라봅니다. 간수는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간수에게 말을 겁니다. "혹시 불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간수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담배 불을 불어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간수가 가까이 다가와 성냥을 켜는 순간, 무심결에 간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영접결에 입가에 띄워진 미소였습니다.

'나'의 미소를 보고 간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수는 '나'의 입에 물린 담배에 불을 불어주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소가 교환되면서 서로 적군이라는 현실 그리고 간수와 포로라는 현실을 넘는 모종의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소를 통해서 두 사람은 동등한 인간으로의 교감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득 간수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식이 있소?" "그럼요, 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 허둥지둥 가족사진을 보여주

었습니다. 간수도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고 간수에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던 간수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렸습니다.

갑자기, 간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감옥을 빠져나가 뒷길로 해서 마을 밖까지 나를 안내했습니다. 마을 끝에 이르러 그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로 '나'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생텍쥐페리는 한때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 '미소'는 자신의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설 '미소'에서는 미소를 통하여 적군의 포로에서 벗어남으로 생명을 구한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미소'를 통해 우리 생명을 구합니

다. 미소를 지으면 살길이 열립니다. 미소의 유익은 무궁무진합니다. 미소의 유익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미소는 인간관계의 증진을 보장합니다.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줍니다. 미소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미소는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미소 띤 얼굴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초청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소는 이웃과의 관계를 열어 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미소는 깨끗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둘째로 미소는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미소는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소는 심장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집니다. 아울러 미소는 생체 장기와 근육 자극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미소를 지으십시오. 미소 지으면 심장이 좋아지고, 폐가 좋아집니다.

셋째로 미소는 행복감을 증진시켜 줍니다. 미소는 긍정적인 신경 전달물질(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불안하고 힘든 순간에 미소를 지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아울러 미소 짓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고양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 행복이 열립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미소 지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도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미소를 짓는 만큼 건강해지고, 미소를 짓는 만큼 사람들이 몰리고, 미소 지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미소가 행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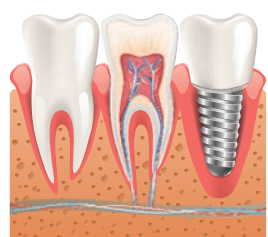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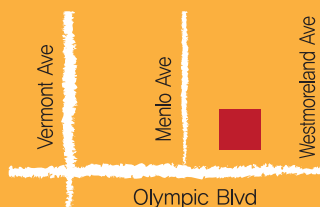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월서 주민연합(WCC) 정찬용 회장, 교계와 성도들에 기도 요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2지구 선거에 출마하는 정찬용 변호사

지난해 한인타운 노숙자 쉼터 반대운동으로 시 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2지구 선거에 출마한 월서 주민연합(WCC) 회장 정찬용 변호사가 본지를 방문해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한인타운과 사우스 LA, 컬버시티, 가디나, 캄튼, 레녹스 등 지역을 포함하는 LA 카운티 2지구는 전통적으로 흑인 슈퍼바이저가 지역을 대표해 왔으며, 이번에도 유력한 3명의 흑인 후보가 출마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역의 총 유권자 약 100만 명 가운데 흑인과 라틴계가 각각 약 30만 명, 백인이 약 20만 명, 아시아 유권자는 모두 2만 7천 여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지만, 인종을 넘어 대중과 호흡하며 진정한 커뮤니티의 발전을 호소할 계획이다.

정찬용 후보는 지난해 5월, 논란이 된 한인타운 홈리스 셸터 선정에 대해 7차까지 이어진 대대적인 시위를 앞에서 주도했다. 노숙자 시설이 한인타운에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것이 아니었다. 노숙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시 정부에 반대했다.

“비단 노숙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시 정부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청회와 주도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변화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주민

들의 엄청난 열세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4.29 폭동 때도 그랬고, 지난 선거구 재조정 때도 그랬고, 문제는 지역구를 대표해 온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지역 시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지 않는 부패와 소통의 문제였다”며 “시장부의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 사회와 시장부의 관계 정상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정치인들 가운데는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합의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LA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전체 지역구 시민들을 위한 발전과 혜택을 가져오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다윗이었다”며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소신을 지키며 부르심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로는 드물게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나 1.5세가 아니다. 한국서 한국외국어대학 정치외교학과를 마치고 현대자동차 수출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에 LA 로욜라 법대에 입학했다. 2007년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고 현재 ‘정&라이코스’ 로펌 대표를 맡고 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 총신대학교 동문 체육대회 ‘하나 됨’ 만끽

제4회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김경일 목사) 체육대회가 지난 16일,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체육대회에 앞서 박경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총신대학교 음악과 출신 음악인들이 특송으로 예배의 은혜를 풍성하게 했다. 이어 남성수 부회장의 기도하고 김경일 목사가 ‘함도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경일 목사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에 손을 대니’에서 ‘대니’의 헬라이어 헬사도의 기본 동사가 ‘함도’로, 그 뜻은 ‘고정시키다, 들러붙다, 붙을 붙이다’라며 “함도처럼 우리 총신 동문들이 서로 고정시키고, 들러붙고, 붙을 붙인 완전 하나 된 관계가 되었으며 한다”



제4회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체육대회

김 목사는 이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동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연합하여 동거하여 살았듯, 로 하나 되어 아름답고 존귀한 형

제의 연합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부 체육대회는 축구와 피구, 족구, 훌라후프 돌리기 등으로 즐거운 때를 보냈고, 총신 동문들이 펼치는 응원전도 뜨거웠다. 릴레이 경주로 대회를 마친 후에는 삼성 TV, 핸드폰, 요세미티 여행권 등 푸짐한 경품을 나누며 풍성한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목사는 “화창한 날에 총신대학교 동문들이 모여 화합을 이루고 하나 됨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많은 사모님들이 직장고 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체육대회는 더 많은 총신 동문들과 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날짜를 선택하겠다”고 전했다. 이인규 기자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신규 목사)
- W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중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김학성: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Faith Christ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3242 W. 8th Street #200., LA, CA 90005
Tel: (818)913-3115



산자의 본분

누가복음 9:57-62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이 비장한 각오로 죽음의 길을 찾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51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쉬 곳을 찾아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했습니다.

이들은 감정이 앞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17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불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모든 박해는 이 땅의 죄인들의 죄 값 때문이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하셨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디든 쫓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같은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기복적인 기대감으로 육신적, 세속적 조건의 기대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영적 소망을 기대할 가능성조차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영적인 소망뿐이어야 합니다. 천국가기 위해 근본적인 회개로 성령을 받음으로 부끄러운 자격으로 천국 가지 않기 위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확장을 위한 선교사역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천국에 목적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조건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8절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친이 지금 죽어 장사할 때가 아니지만, 부친이 연로하여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치르고 잘 마무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하며,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육신으로 죽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 안에서 거듭나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산 사이면서 죽은 자에게 매여 살리는 일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주는 직분과 직책들, 여러 모양으로 맡겨지는 일들을 여러 가지 핑계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1-2에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직장을 나가야하는 형편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25-32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생활은 사회를 통해서라는 이중적인 처세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자기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는 조건으로 책임져 주셨다고 진정 믿어진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좇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0:13-15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했습니다. 전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의 사명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사명은 없습니다.

다니엘 12:3에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전도회는 전도를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그 모임에는 죽은 자도 있을 것이며 산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회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먼저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을 살려 함께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산 자의 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1절에는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대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어 새 생명을 받았습니. 그리고 쟁기를 잡은 자로 죄악에 찌들어 완악해진 심령의 발을 갈아 회개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던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3-4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했습니다.

우리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인간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적인 소망의 직분을 어떻게 균형 잡아 감당해 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 가족으로 더불어 명을 같이 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부모 또는 부모나 자녀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천국 확장과 권세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세상 조건만 가지고 기복적인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지옥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영적인 것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직분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더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신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을 빌미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이는 저주받은 인생의 모형입니다.

또한 산 자의 자격으로 살리는 일에 힘써달라는 직분을 받아 놓고도 죽을 일들을 핑계 삼아 살리는 일을 지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는 소망을 얻어 놓고도 세상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게을리하고 배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한 국 방 송 설 교 | | 한 국 신 문 설 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북 기독교신문 | 3면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미 국 방 송 설 교 | |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
| CTS TV |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 | 시카고 기독교방송 |
| | 토요일 서부오후 6시/동부오후 9시 | |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 미 국 신 문 설 교 | | | |
| 기독교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 |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 |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 | |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 |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 이은태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이른 비의 기적 I 늦은 비의 기적 II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은태 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저음 / 2권 252면 / 13,000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니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Puente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추석맞이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50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

1. 지원 자격

- 1) ECO(복음연합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2편): 영상 파일 혹은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 (이중 한 분은 이전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19년 9월 30일까지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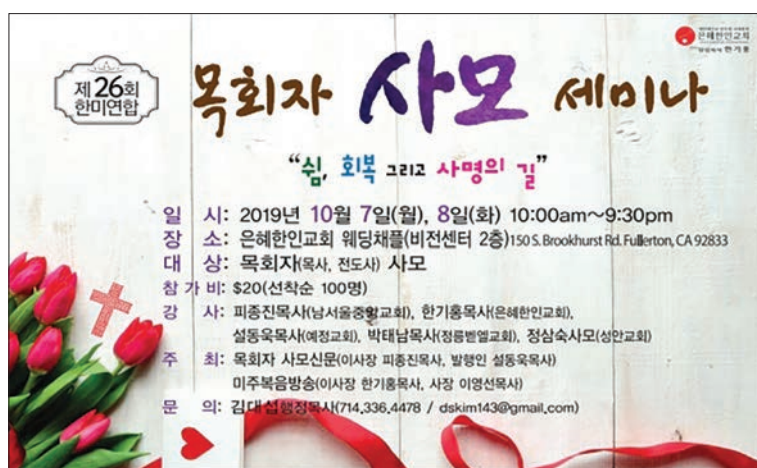
“목회자 사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한미 연합 제26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 10월 7일~8일 열려

목회자 사모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목회자 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과 미주 복음방송(이사장 한기홍 목사, 사장 이영선 목사)이 공동 주최하는 ‘한미 연합 제26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심,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강사로는 피종진 목사, 한기홍 목사, 설동욱 목사, 박태남 목사(정릉 뱀열교회), 정삼숙 사모(성안교회) 등이 나서 사모들의 사역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영적 재충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설동욱 목사는 “목회자 사모들은 무조건 섬겨야 한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 있지



만, 사모들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매우 귀한 분들”이라며 “힘든 목회 현장에서 울고 싶어도 마음 편히 울지도 못하고, 웃고 싶어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하는 사모님, 세미나에 오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음껏 울고 웃으

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선착순 등록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목회자 사모세미나 등록비는 20달러이며, 문의 및 참가 신청은 김대섭 행정 목사(714-336-4478 / dkim143@gmail.com)를 통해 가능하다. 이인규 기자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창립 9주년 감사음악예배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의 유일한 한인교회인 산타모니카 한인교회(담임 김경렬 목사)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6일(주일) 오후 1시 30분 창립 감사예배를 드린다.

창립 감사예배는 본국 하나교회 하상훈 목사가 설교하고, 달라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Kim Quartet가 특별 연주, 소프라노 김우영 사모가 특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예정이다.

산타모니카 한인교회는 UCLA, 산타모니카 대학 등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 지역 홈리스들을 위한 푸드뱅크 구제 사역에도 힘쓰며 산타모니카 지역에 복음의



소프라노 김우영 사모

씨앗을 심고 있다.

김경렬 목사는 “

교회가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교회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산타모



이번 감사음악예배에서 특별연주를 맡은 Kim Quartet

니카, 말리부, LA 서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창립 9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초대

의 말을 전했다. 이인규 기자

방주교회 풍성한 한가위 율놀이 대회 개최



방주교회가 리틀도코 갤러리아에서 개최한 제8회 한가위 율놀이 대회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 봉사팀은 지난 14일, 리틀도코 갤러리아에서 제8회 한가위 율놀이 대회를 열고, 추석의 풍성한 기쁨을 나눴다.

‘방주교회 사랑의 점심 식사팀’이 주최하고, 리틀도코 갤러리아와 마켓 플레이스, 웰컴치과, 뉴욕라이프가 후원한 율놀이 대회는 남녀노소 총 15팀이 참여해 전통문화 체험하며 추석의 의미를 되

새겼다.

15개 팀이 참가한 율놀이 대회 우승은 리틀도코, 준우승은 근우회, 장려상은 미주 3.1 여성동지회로 돌아갔다. 또 마켓 플레이스에서 협찬한 쌀과 라면 건강식품 과일 등 매 경기 후 푸짐한 경품 추첨이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한 김영규 목사는 “한가위를 맞아 한국 교유의 전통놀이를 통해 세대와 인종의 벽

을 뛰어넘어 추석의 정을 나누는 행사를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히 어려운 경기에도 사랑의 손길과 협력을 해주신 기업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대회를 주최하는 방주교회 사랑의 점심모임팀은 2009년 9월 첫 ‘독거노인의 사랑의 점심 나누기 모임’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매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장과 관계 회복” 월드미션대학교 상담교실 개강

오는 9월 23일(월)부터 11월 18일(월)까지 9주 동안

상담교실은 WMU 기독교상담학과 교수인 김현경 박사가

한인교회 내 상담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한 일환으로 개설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하 WMU) 상담교실이 오는 9월 23일(월)부터 11월 18일(월)까지 매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장과 관계 회복”이란 주제로 9주간 진행된다.

김현경 박사는 탈북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ANC은누리교회 상담사역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수료자들은 WMU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고, WMU 진학 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등록비는 100달러다. 문의 (213)388-1000 김동욱 기자

미주 대한신학대학 제5대 총장 김창현 박사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제 66차 남가주노회 추계 노회 및 미주 대한신학대학 총장 이.취임식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제66차 남가주 노회 추계 노회 및 미주 대한신학대학 총장 이.취임식이 지난 15일, 풍성한 교회(담 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 예배는 김영배 목사의 사회로 류당열 목사가 "하나님의 뜻"(살전 5:16-18)이란 제목으로 주안에서 향상 기

쁘고 감사를 누리는 삶에 대해 설교했다. 예배에 이어 최아곱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됐고, 정기 노회와 대한신학대학 총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미주 대한신학대학 4대 총장 박효우 목사는 신임 김창현 총장에게 본교 깃발을 전달했다.

이인규 기자

미이연 '두 날개 선교회' 문제점 밝힌다

오는 9월 28일(토) 14회 정기 세미나, 베들레헴 장로교회

미주 기독교 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 이하 미이연)는 오는 9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LA 소재 베들레헴 장로교회(담임 서중천 목사)에서 제14회 이단대책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날개 선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의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선희 목사는 "미이연은 해마다 정기세미나를 통해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리를 사수하고 바른 신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초대 의 말을 전했다.

제14회 이단대책 정기세미나. 일시: 2019년 9월 28일(토) 2:00-4:00pm. 주제: 두 날개. 장소: 베들레헴장로교회(서중천 목사 사무). 주소: 16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전화: 323-823-0691.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인천 상륙작전 69주년 기념행사 개최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KVM-CF SC 회장 김희창)는 지난 14일, 말씀새로운교회에서 인천 상륙작전 69주년 기념행사로 교인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9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최만규 사제의 인도로 최철학 부회장이 대표 기도했으며 총무 소피아 백 전도사가 성경 봉독했다. 또 정신여중동 동문 남가주 우울렐레 합창단이 특송을 연주했다.

이날 "광야를 경험하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미주장신대학교 이상명

총장은 "한국전쟁의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글로리아 합창단 임화자 전도사의 헌금 특송에 이어 차기학 부회장이 봉헌 기도했으며, 이기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에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 관계 회복,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문재인 퇴진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11시, 말씀새로운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213-268-9367

이인규 기자

플러튼 민족학교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

시민권 신청 워크샵 NATURALIZATION WORKSHOP. 민족학교에서 도와 드립니다. KOREAN RESOURCE CENTER. 날짜 DATE: 2019년 9월 21일 (토). 시간 TIME: 9 AM - 5 PM. 장소 ADDRESS: 민족학교 플러튼 사무실 62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2. 사전 예약 필수! BY APPOINTMENT ONLY. 전화 문의 CONTACT: 714-869-7624 WWW.KRCLA.ORG

통령 선거를 맞아 시민권 취득은 한인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보여진다.

이런 현실에 반응하여 민족학교는 오는 9월 21일(토)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개최한다. 민족학교 플러튼 사무실에서 진행될 이 행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제공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9개월(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2년 9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최근 5년간 2년 6개월(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실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9월 21일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민족학교에 연락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과 동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연결이 안될 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일시: 9월 21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민족학교 플러튼 사무실 62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2. 문의: 714-869-7624

정은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2: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편 오후 2:00.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714) 296-6783 www.sb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2222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전 11:00.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성경특목모임 오전 9:30, 주일예배 오전 11:00.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hla.com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양희송 불륜’ 청어람 ARMC “향후 활동에 대한 입장” 발표



양희송 대표.

양희송 대표의 수년간 불륜 사실을 지난 9일 공개한 청어람 ARMC에서 추석 연휴 이후인 16일 1주일 만에 ‘향후 활동에 대한 현재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단 없이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사과’ 대신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어람 측은 “지난주 양희송 대표의 신상 문제에 관한 청어람 이사회의 결의와 입장 발표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리게 되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여러 경로로 보내주신 질책과 조언과 격려

이번 결정, 합당한 책임 위해 엄중·신중하게 내려 외부로 향했던 비판의 날을 저희에게 향하는 의미

의 말씀들 꼼꼼하게 읽으며 깊게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청어람이 개신교 안과 바깥에서 감당해 온 역할에 합당하게 책임지기 위해 엄중하고 신중하게 내린 것이고, 그동안 외부로 향했던 비판의 날이 저희를 향하게 하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의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더 많은 비판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다.

활동 재개 의지도 밝혔다. 이들은 “어떤 분이 ‘이제 청어람의 시간은 끝났다’고 하신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지난 2013년 재정 위기를 맞아 ‘폐업’을 고민할 때 기회를 주시고, 지난 겨울 종로로 이전할 때도 새로운 청어람을 기대하

며 넉넉히 채워주셨던 분들은, 청어람을 후원하고 함께 공부하며 고민을 이어가던 벗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어람은 대표 한 사람의 것도, 청어람 이사회나 사무국의 것도 아니다”며 “청어람의 시간은 그동안 청어람과 인연을 맺은 벗들과 함께 일구어온 소중한 자산이고 자부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분이 ‘앞으로의 청어람’을 궁금해 하신다”며 “저희는 청어람 강좌를 기다리시는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정비의 시간을 거친 후 10월부터는 세속성자 수요모임을 비롯, 청어람 주요 강좌들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켜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청어람과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대웅 기자

“중공산당, 십계명을 시진핑 연설로 대체하라 지시”

비터 윈터 매거진 보도... 기독교 박해 일환



중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강요 받은 허난성의 한 교회. ©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 허난 지역의 교회가 정부의 압박에 십계명을 내리고 시진핑 주석의 연설로 대체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7일 비터 윈터 매거진을 이용해 보도했다.

인권 및 종교의 자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최근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 일환으로 루오양 시(市)의 모든 삼자교회에서 십계명이 없애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십계명을 시진핑이 2015년 통일선전부에서 했던 연설로 교체하고 있다.

당시 시진핑은 “핵심적인 사회주의 가치들과 중국 문화가 중국의 다양한 종교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 단체들이 시대적 발전에 필요한 방식으로 종교적 사고, 교리,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타락한 서구 이데올로기를 단호히 막고, 극단주의적인 사고의 영향력에 의식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고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이른 바 ‘종교의 중국화’라고 비터 윈터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공산당에 반하

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일부 삼자교회는 교회의 문을 닫고 있다. 또 다른 교인들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삼자교회의 한 목회자는 비터 윈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약화시킴으로써 삼자교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면서 “첫 단계는 교회 노래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달기 시작했다. 신도들의 종교생활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됐다. 마지막에는 십계명을 시 주석의 발언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성도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다. 중국은 일당 독재국가이다. 사람들에게는 공산당에 대한 복종만 허용되고, 공산당에 의해 통제된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인 시온교회와 쓰촨성 청두시 추위성야교회를 강제 폐쇄시킨 바 있다. 또 기독교의 중국화를 위해 성서 번역에도 개입하고 있어 ‘성서 왜곡’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청년 10명 중 8명 “동성애, 매우 큰 죄”

2030세대 기독교청년들 10명 중 6명이 “결혼은 꼭 해야 한다”(64.60%)고 생각했으며, 10명 중 8명은 동성애가 “매우 큰 죄”(84.40%)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 월간지인 「월드뷰」는 ‘복음한국’과 함께 지난 8월 12~14일 한동대서 열린 ‘복음한국 제1회 청년캠프’ 참석자 1,060명(실제 응답자 2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9월호를 통해 공개했다.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에 대한 물음엔 가장 많은 26.70%가 “신앙 생활”이라고 답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21.80%) “결혼”(17%) 등의 순서였다.

통일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였다. “당장은 안 하는 것이 낫다”와 “억지로 통일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각각 13%로 같았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63.4%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18.5%, “별로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11.5%였다.

낙태와 관련해선 “(낙태가) 매우 큰 죄”라는 답이 70%를 차지했다. ‘외국인 이민자 및 근로자를 한국 사회가 받는 것’에 대해선 39.9%가 “약간 반대한다”고, 25.9%가 “약간 찬성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강북제일교회 분쟁 종지부”... 황형택 목사 ‘복권’ 전망

총회 중재로 조인서 목사 측과 합의

8년간 이어오던 강북제일교회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 예정 통합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강북제일교회 양측(황형택 목사 측, 조인서 목사 측)은 총회 임원회와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채영남) 중재로 지난 11일 만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로 조 목사 측은 총회와 노회 및 사회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즉시 취하하기로 했고 황 목사 측은 선교지원금을 조 목사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교회 재산과 부지에 대한 부분도 모두 합의했으며, 강북제일교회의 교회 명칭과 홈페이지 주소는 황 목사 측이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104회 총회에서 황 목사에 대한 ‘복권’

도 이뤄질 전망이다. 예상 통합 재판국은 지난 2011년 12월 8일 황 목사 측에 대한 ‘복사 안수’ 무효를 결정했다.



황형택 목사.

김진영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실험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등)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과대학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100여개의 생화학 분야 연구논문
- 미 연방재정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OH-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심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오리엔테이션: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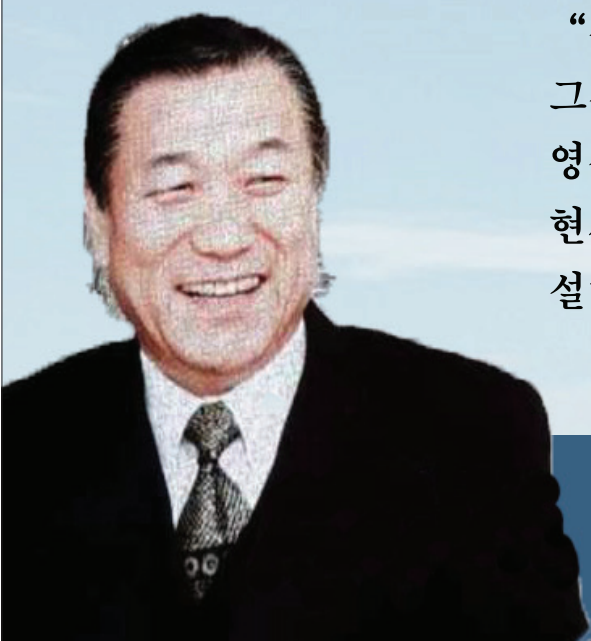
상담문의전화:213-272-6031

축 새생명교회및 영성원 설립예배

일시: 2019년 9월 29일주일 오전 11시

장소: 미주크리스천대학교 2층 가와 램파트 사거리
276 S.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703-3236



“감사합니다. 저는 박철수 목사입니다
그간 LA 지역 영성훈련에 참여 하셨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영성사역과 후속사역 힐링-멘토링으로 심리에서 심령으로 나아가
현세천국을 함께 누리고자 미주지역에 교회및 영성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동참하시길 바랍니다.고맙습니다”

미용선교무료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2시-4시

연결하면 풍성해 집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지난 주일 아침 샤워를 하려는 게 아내가 수도물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밤사이에 수도관이 터져 DWP직원이 와서 수도물을 잠시 동안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집에 수도물이 나오지 않자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할 수도 없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웬지 모르는 불안감마저 느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집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샤워를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면서 단절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단절의 고통은 공급이 단절되는 고통이며, 연결이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단절의 경험은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이 임했습니다. 단절을 통해 사망이 임했습니다. 단절을 통해 저주와 결핍과 정죄와 수치심과 고통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연결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연결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임합니다. 통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통하면 유쾌해집니다. 연결은 소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합니다. 소통은 언어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면서 함께 아파해 주는 능력입니다.

연결은 공급입니다. 단절은 공급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수도물이 끊어지는 순간, 물을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공급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공급을 풍성히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습니다.

연결은 연합입니다. 연합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때 자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가지 된 우리가 연합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15:5b)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연결은 관련을 맺는 것입니다. 연결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잘 연결시킬 줄 압니다. 연결한다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배우든지, 배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운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이란,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적용시키는 능력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을 잘 맺으면 기억력이 탁월해집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순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또 다른 연결을 낳습니다. 하나의 연결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연결은 또 다른 연결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과 연결되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초연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즈음 자주 접하는 단어가 “IoT”(Internet of Things)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oT에 대해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이라고 정의합니다.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사람들 간의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때보다 심한 분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리차드 뱌브란트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형제가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운 십자가를 지고 사는데 자신만 무거운 것을 지고 있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평을 들은 천사가 그를 데리고 십자가만 모아 놓은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십자가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황금으로 된 빛나는 십자가를 쳐보았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것을 골랐더니 가볍기는 한데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어깨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것 저것을 시도하던 그가 방 한쪽 구석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은 십자가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잘 보아라. 그것이 너가 처음부터 지고 있던 그 십자가란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불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며 거부하기 보다는 자신의 뒤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려 할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지만, 솔직히 주님이 지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재판정에서 당한 모욕과 억울한 누명,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록 맞은 채찍, 그리고 벌거벗긴 채 저주의 형틀에서 죽어가야 했던 아픔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누릴 권리와 영광에 대해서는 그토록 목청을 높이면서도 자신이 져야 할 희생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십자가를 바로 질 때 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값싼 은혜가 아닌 숭고한 은혜의 진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지난주 화요일, 새벽기도를 마친 후 풀타임 목회자들과 인근 산행을 다녀 왔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화요일 오전 9시 회의로 한 주간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처럼 하이킹을 하며 시작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달, 시애틀에서 정책 회의를 할 때도 산행을 했는데 재미가 들렸나 봅니다. 양복 두 시간의 산행 후 즐거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기분이 산뜻하고 다들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운동도 하면서 심신을 다지자고 결의했으니, 한 달에 한 번은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6시 50분에 모여 완만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숲이 우거져 있어서 낮에도 올 만하다고 생각

을 하며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맘껏 들이마셨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가끔 지나가는 자전거들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오르기도 힘든 산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인생 살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0여분 산을 오른 후부터는 제법 경사가 있어 뒤에서 쫓아오는 한 여전도사님이 쉬었다 가자고 아우성칩니다. 마침 쉬고 갈 수 있는 의자도 있어 마음이 흔들렸지만, “쉬면 더 못 간다”고 격려하며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산행의 백미는 정상에 올라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 목덜미를 타고 내리는 땀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흥행할 수 없는 상쾌함은 땀 흘린 후에만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일 것

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의 남단 지중해 도시 비가(지금의 안탈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말라리아로 체력이 소진된 후였고, 동행

하던 요한 마가가 팀에서 이탈하여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형을 살펴보니,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해발 12,000피트나 되는 토러스 산맥(Taurus Mountains)을 넘어서 간 것이었습니다.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버티고 있는 장엄한 산입니다. 그 험한 산을 넘어가자는 말에 요한 마가가 겁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산행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에서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누리기 위한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산행이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았을 토러스 산을 넘는 여정입니다. 구브로 섬을 횡단하는 데도 3개월쯤 걸렸을 것이

라 짐작되는데 이보다 더 걸렸을 법한 고행길을 성경은 ‘더 나아가(went on)’라는 두 단어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행 13:14) 산을 넘어 쉬어 가자고 아우성쳤던 멤버 얘기도 없고 정상에서 누리는 쾌감을 적어 놓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산짐승의 위협을 무릅쓴 이야기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행보에 그런 것이 야기될리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7)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염구리 통증(협통)
- 10일 이상 저공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몰록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소화 불량,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감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배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토 10시~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00년 전, 소녀들이 남긴
그날의 가장 생생한 기록!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남가주 상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후원작품

나래이션/하희라 출연/이세봄 양윤희 김나니 박자의 김규리 김무리 류의도 장세아 황도원 문보람 나애진 특별출연/황현주 김광식 오지현 우정출연/권영찬 김홍표

감독/신상민 작가/이은혜 총감독/윤학렬 제작/ 유관순 문화산업협업유한회사 공동제작/하세(HASE) | (주)성진본고기 | 송연기업 | (주)풍진 | (주)여의 | 기드온동족선교회 | 근우회 | 나눔과 기쁨

기획 이은혜/김승연 총감독 윤학렬 감독/ 편집 신상민 필러소셜 이은혜 구성작가 장지윤/김예진/김문주 각색 권선 송광프로듀서 최동선 책임프로듀서 최정현 기획이사 김민희 제작이사 박상현 조감독 송가진 촬영감독 권오경 조광감독 서종평 음악감독 김민희 총사운드 송민규(Sound K) 장비 영가수 분장실장 장해림(make-up 안) 특수분장제작 소지현(SSOART) 미술감독 박영규(YG픽쳐스) 특수효과 도광섭 세트 날기상 CG 문민식(바닐라 스튜디오) DI/DCP/믹싱 나상인(시온드림) 보조출연 서용선/레오르드 T&S 홍보 마케팅 한옥(영화의 온도) 기획팀 김준형/임건성/김우진 재무팀장 객지재 디자인 민경희(보보) 헤어팀 임유진 케스팅지원 주성주(이규엔터테인먼트) 예고편 오대석(타이리언스) 역사 고종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역사대 유관순 연구소

후원 / (주)한성애프라이 율포유 | 서울도시재생 | 한국수력원자력 | KDB산업은행 | 동화세상에듀코 | 한국서부발전 | 허브데이 | (주)농농비료 | 인스론 협찬 / (주)이마트24 | 삼성카드 | 허브데이 | 한국경제위원회 | 서울교통공사 | 서울경제연합 | (주)한미실업



2019.3

상영안내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저녁 7시

장소 : 갈보리믿음교회 웨스트민스터 채플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한국의 고아 사랑한 일본인, 윤학자 여사를 아십니까?



윤학자공생재단 윤기 회장. 그는 한국과 일본을 자주 오간다. 이 사진은 최근 그가 잠시 한국을 찾았을 때, 서울 마포에 있는 윤학자공생재단 사무실에서 만나 찍은 것이다. ©김진영 기자

목포시는 1965년 ‘목포 시민의 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를 정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압도적 지지를 받은 한 명. 바로 일본인 윤학자(尹鶴子, 1912~1968) 여사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 조선총독부 관리가 된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그녀는 목포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 훗날 남편이 될 윤치호 전도사를 만난다. 윤 전도사는 1928년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목포에 공생(共生)원을 세웠다.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같은 기독교 신앙을 따라 갈 곳 없는 많은 아이들을 품었다. 특히 윤학자 여사는 6.25전쟁 당시 남편의 행방 불명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 공생원을 지켰다. 우리 정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해 1963년 문화훈장 국민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일본인으로 한국인과 결혼했으며, 기독교인이었고,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던 그녀. 이런 헌신적 모습에, 1968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무려 3만여 명의 목포시민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그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윤학자 여사의 아들인 윤기(尹基, 77, 일본명 타우치 모토이田内基) 윤학자공생재단 회장은 현재 일본인으로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와의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됐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공생복지재단과 윤학자공생재단의 심부름꾼이고 일본 ‘마음의 가족’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 사회복지 시설을 필요한 지역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일한국인 고령자들의 보급자리인 ‘고향의 집’을 만드는 일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집’ 현재 도쿄, 교토, 사카이, 고베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22명은 가족이 없습니다. 이에 ‘고향의 집’ 뒷뜰에 ‘평화와 기도의 정원’을 만들어 그 방향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합니다.”

-어릴 적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땠나요?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 바다와 섬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적 어머니는 몸이 약하신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집 없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셨습니다. 아이들 먹일 것이 없으면 죽이라도 먹이기 위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셨습니다. 병든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던 어머니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늘 진심 어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6.25전쟁 당시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죽어 간 아이를 위해 슬퍼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수 소독한 옷을 입히시고는 그 곁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아 불쌍하다’며 ‘하룻밤이라도 곁에 있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왜 해방 후에도 한국에 남아 고아들을 돌보셨나요?

“해방 후, 어머니는 할머니를 일본에 모셔다 드린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공생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당시

의 일평생 사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가 행방불명 된 이후에는 주위 사람들이 ‘남편도 없고 전쟁통에 혼자 살기도 어려우니 공생원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들어가라’고 했지요.

그러나 떠나지 못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올거라 믿으셨던 까닭입니다. 혹여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많은 이들에게서 칭송을 받으셨지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없는 동안 수고했소.’ 바로 아버지의 이 한 마디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셨고,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되고 부터는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등, 교회에서의 생활을 매우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빛 바랜 앨범 속 어머니 사진들은 모두 교회에서 찍은 것 뿐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에는 독특한 기독교인이셨던 제 외할머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한국 인과의 결혼에 대한 주변의 심한 반대로 고민하는 딸에게 ‘결혼이란 국가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이 하는 거다. 천국에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구분이 없다.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할머니의 신실한 믿음이 두 사람의 결혼을 가능케 했고, 어머니를 한국으로 시집보내며 ‘믿지 않는 일본 사람보다 믿는 한국 사람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서 다시 못 만나더라도 천당

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공생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어린 시절 철 없는 마음에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자랐습니다. ‘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공생원의 아이들과 함께 키우며 내게 특별한 애정을 주지 않느냐. 어머니 눈에는 자기 자식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이지요. 어머니는 공생원의 모든 아이들을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공생원 아이들에게 ‘사회에 나가 자립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상 같은 것은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주지만 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일 두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들인 저로서는 그저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해방 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또 6.25전쟁 당시 고초를 당할 뻔 했지만 공생원 아이들과 목포 마을 주민들이 어머니를 보호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라며 고역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원 아이들이 ‘일본 사람이어도 우리들의 어머니’라며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금 살아 있는 이 목숨은 너희들이 살려준 것이다. 진실이란 국가와 민족이 달라도 통한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6.25전쟁 때, 아버지는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에 의해 인민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형집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다. 그러자 인민군은 아버지를 인민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민군이 물러가자 아버지는 인민위원장을 지낸 죄로 옥에 갇혔

습니다. 이후 피난 갔던 목사님들이 돌아와 ‘윤치호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기독교인이다. 그는 고아들을 두고 피난갈 수 없어 할 수 없이 인민위원장을 승락한 것’이라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3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고아들의 식량을 구하려 광주로 떠났던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일은 알아도 돌아가신 날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며 ‘같이 살자’는 ‘공생’(共生)의 정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어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기시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는 어머니에게 ‘한 일간의 파도가 높아지면 현해탄 한 가운데서 파도를 잠재울 사람은 당신’이라 하였습니다. 일본의 정치인이 사회사업을 하는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국가간의 큰 일도 결국 인간애, 즉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특별히 교회와 기독교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양국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화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 서서 하나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두 나라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저는 정말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



아버지와 고생원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빛 바랜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은 윤기 회장.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들카헤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부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 |
|--------------------|--------------|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시민권 취득 |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추방 재판 |
| ▶ 학생비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목회자료
 영성책
 영성카드
 영성일지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자서전(대필)전문

■ 자서전 쓸 분
 ■ 대한민국출생 8.15와 6.25등 많은 경험 후 지금 성공 자리에 서신 분

자녀들과 같이 자서전 쓰고 싶은 분 연락바랍니다.

자서전(대필)전문 작가(시인·박사)
T. (213) 618-150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10월

추억만들기 단풍여행 **1박 2일**

비숍 단풍

가을이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황금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비숍에 가보자. 맘모스레이크와 준레이크에서 발원된 단풍의 불길은 사브리나 호수(Lake Sabrina)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199 10/10(목)~11(금) 1박 2일

11월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렉시 뷔페, 발보아 파크

\$99 11/9(토) 당일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Tel. 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콤플렉스' 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마음에 박힌 못 하나
곽금주
쌤앤파커스 | 325쪽

누구에게나
하나쯤 박혀 있는
마음의 못
신화, 문학 그림,
그리고
당신이 있는
'콤플렉스 심리학'

'나'를 알고자 하는
욕망만큼
집요한 것이 있을까?
각종 심리검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곤 한다.
오죽하면 혈액형에까지
의미를 부여하겠는가.

이 책은
당신을 탐구하는
많은 방법 중
하필이면
조금 뼈뺀 노선을
택하고 있다.
바로 '콤플렉스(complex)'를
통해 보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최고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람이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기 때문일 것이다.

철학자 니체도 이런 말을 했다. "자신에 대하여 얼버무리거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지 말라. 자신에 대해서는 늘 성실하며, 자신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마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과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알지 못하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인생은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을 알기 위해 자신을 탐구하기도 한다. 심리검사를 하기도 한다. 혈액형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이 책은 콤플렉스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자 융은 "인간의 마음은 많은 콤플렉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즉 콤플렉스란 성격의 구성 요소다. 이 책 저자인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콤플렉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콤플렉스란 특정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방어하는 행위다. 과거 충격적이었던 사건과 관련된 신호들을 모두 위협으로 받아들여 방어적 행동을 한다. 여기에 콤플렉스의 위험성이 있다. 콤플렉스 그 자체는 병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스스로 병적인 것이라고 낙인찍고 자신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순간, 콤플렉스는 마음에 박힌 못이 된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 볼 수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달의 이면(裏面)처럼, '나라는 존재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콤플렉스가 잠재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콤플렉스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애초에 부질없는 노력이다.

그래서 저자는 스스로 자신의 콤플렉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콤플렉스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잘 다독이며 나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끌어안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일 수 있다. '내 콤플렉스가 이것이다'라고 인식할 때, 그것이 이미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는 못이 아니게 된다.

책에 대표적 콤플렉스 18가지 소개 성격 속 인물 붙인 콤플렉스도 2개 카인 콤플렉스, 형제 질투하는 모습 요나 콤플렉스, 안전지대 이탈 두려움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콤플렉스 18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콤플렉스의 유래와 원인, 내면의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신화 및 문학작품의 인물을 통해 한 편의 이야기를 읽듯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다.

18가지 콤플렉스 중에서 성경의 인물 이름을 붙인 콤플렉스가 있어서 두 개만 소개하겠다.

첫째, 카인(가인) 콤플렉스다. 카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알고 있는 인물이다. 카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다. 카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 화가 났다. 결국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린다.

카인 콤플렉스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한 나머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은 형제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콤플렉스다. 자신과 비슷하고 가장 가까운 혈육을 처절하게 미워하는 심리로, 모두가 품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다.

이 콤플렉스는 위험한 상황이나 위협적인 주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반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욕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즉 가까운 경쟁자인 형제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과도한 방어인 것이다.

카인 콤플렉스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족, 내 형제들에게 나도 모르게 가진 경쟁심, 질투심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한 번 짚어보는 것은 어떤가. 나도 모르게 품는 경쟁과 질투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형제는 생애 최초의 경쟁자인 동시에 평생을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요나 콤플렉스다. 요나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배속에서 3일간 지내다가 기적으로 살아나온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린 사명은 뜻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사명을 이루려면 적국의 국경을 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조국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

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뒤따라올지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가 두려워 도망간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과감히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가능성을 실현하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요나 콤플렉스다. 마치 요나가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헛되이 도망치려 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백한 소명이나 임무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장 충동과 변화를 거부하는 힘인 안전충동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 요나 콤플렉스는 성장 기회를 추구하다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기인한 안전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요나 콤플렉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성공을 열망한다.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때때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치민다. 광장으로 나가야 할 때 관허 거기에 가서 위촉될까 봐 걱정한다. 지레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내 능력이 생각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시도하고 실행하고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한 단계 더 높게 된다. 바로 이것이 때론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의 가치가 아닐까? 그러니, 두려워 말자."

사람, 처음부터 불완전 존재로 만들어져 '나' 의존해, 강점과 약점 합쳐진 존재 콤플렉스 내 모습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완벽주의자는 될 수 있어도 완전한 존재는 될 수 없다.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나라는 존재는 강점+약점이 합쳐진 존재다.

콤플렉스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콤플렉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인 관점에 우리의 약함은 은혜의 공간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공간이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이는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한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첫째, 육체의 가시를 통해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둘째, 자신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인은 콤플렉스를 통해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콤플렉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약한 그때가 감함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감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65 Stand X-Banner

\$160 (디자인 포함)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오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원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플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 | |
|--------------|--|
|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꽃소금, 맛소금) |
| 나트륨 Na: Cl | 바나듐 (Na) |
| 칼륨 K: Cl |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
| 칼슘 Ca: Cl | |
| 마그네슘 Mg: Cl | |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10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50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 예방에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에서 경험하세요